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 문헌 자료선 ②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 해제

펠리페 2세 시기는 카를로스 1세의 뒤를 이어 스페인 제국의 영토 확장이 지속되었던 시기인데, 특히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Miguel López de Legazpi)의 필리핀 정복(1565~1569)이 두드러진다. 이후 스페인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중국을 점령하려는 꿈을 가졌다.

1492년 교황과 맺은 조약과 1493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은, 대서양과 브라질 지역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해관계를 분할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는 불확실했다. 1529년 사라고사 조약으로 동양에 대한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정리되었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몰루카 제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하였고, 필리핀 서쪽 지역의 지배력은 마카오에 기반시설을 구축한 포르투갈로 넘어갔다. 그 대가로 항상 돈이 필요했던 스페인 국왕은 350,000 두카도스를 받았지만, 사라고사 조약은 동인도에서 스페인의 이익의 종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페인은 동양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는데, 필리핀 이후의 대상이 바로 중국이 되었다.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비교적 수월한 방법으로 필리핀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그곳에서는 단일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군주나 귀족도 없었다. 이슬람교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락 단위의 소규모 마을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필리핀 점령 이후 스페인 사람들은, 필리핀에 거주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던 중국인들과 접촉하여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중국 해안 탐사를 시도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중국 점령을 염두에 두고 한층 구체적인 중국 정보를 수집하기에 이른다.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한껏 고무된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역시 중국 탐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 스페인 총독과 멕시코 부왕은 노골적으로 중국 침략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펠리페 2세로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덜란드 반란이 더 큰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중국 점령 계획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때 중국은 스페인에게 동남부의 푸젠(福建) 지역을 개방하여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한다. 스페인에게 푸젠은 포르투갈에게 허용한 마카오와 같은 역할을 하

는 곳이었다. 그러나 중국 점령을 촉구하는 서한이 필리핀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적으로 펠리페 2세에게 전달되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보고되었다. 특히 이 시기 필리핀에 있던 스페인 사람들의 중국 정복 욕망이 강했다.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가는 첫 탐사는 1575년 6월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단한 야망을 가진 새로운 총독 프란시스코 데 산데(Francisco de Sande)는 1576년 6월 6일 펠리페 2세에게 6천명의 군사로 중국을 점령할 계획을 서한으로 통고한다. 산데는 중국의 한 지역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중국인들에게 스페인 사람들이 해방자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인 조력자들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도 점령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치 스페인이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방법과 비슷하다.

또한 1583년 6월 20일 필리핀 총독 디에고 론키요(Diego Ronquillo)는 펠리페 2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 정복은 신과 폐하에 대한 봉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라며, 중국 침략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당시, 이런 종류의 수많은 문서가 등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왕실의 최고 식민통치기구인 인디아스위원회(Real y Supremo Consejo de Indias)는 이런 계획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5백만 명의 병사로 무장된 중국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펠리페 2세도 중국 정복에 회의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은 이미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으며, 중국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정복을 시도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스페인 함대는 수적으로 중국에 미치지 못했지만 질적으로 우수했으며, 당시 명나라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을 정복하는 것보다 넓은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신 펠리페 2세는 중국의 황제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 했고, 1580년과 1582년 두 통의 서한을 중국 명나라 황제 만력제(萬曆帝 재위: 1573~1620)에게 보냈다. 그러나 한 통도 만력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현재 세비야의 인디아스 문서보관소(Archivo General de Indias)에 보관되어 있는 이 두 통의 서한 중에 첫 번째 서한은 1580년에 작성하여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수도사 특사인 헤로니모 마린(Jerónimo Marín), 프란시스코 데 오르테가(Francisco de Ortega), 후안 곤살레스 데 멘도사(Juan González de Mendoza)가 멕시코로 가져갔으나, 이들을 태운 배가 난파되어 겨우 몸만 멕시코시티에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국왕의 서한은 중국 황제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일 년 후에 펠리페 2세는 다시 중국 황제에게 서한을 써서 성 프란시스코 회 소속 수도사 헤로니모 데 부르코스(Jerónimo de Burgos)에게 전달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편지는 1583년까지 마닐라에 도착하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이 두 통의 편지로 1580년에서 1581년 사이에 펠리페 2세는 중국 명나라 황제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려고 시도했으며, 중국과 외교적인 유대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 필리핀이라는 국명의 유래가 된 왕이다.

1. 폐하께서 중국의 왕에게 보낸 서한 (1580년)¹⁾

신의 은총으로 스페인과 나폴리, 시칠리아, 예루살렘 등의 왕이자, 또한 (서)인도와 대양의 대륙과 섬들의 왕이며, 오스트리아의 대공이고, 밀란과 브라반테의 부르고뉴 공작이고, 합스부르크와 플랑드르와 티롤 등의 백작인 돈 펠리페는 강력하고 경애하는 중국의 왕에게 진심으로 변영과 변창을 축원하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필리핀 섬에 파견된 나의 총독들의 보고와 종교인들을 통해서 국왕께서 위대한 왕국을 현명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도착해서 쉬고 있는 항구와 여러 곳에서 귀국의 신하들이 우리 신하들을 아주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국의 우정에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지상과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시자, 인간의 구원자이시자, 인간이 찬양하는 진정한 신의 명예와 영광의 길을 향해 가면서, 인간들은 진정한 지식으로 신을 믿고 성스러운 신의 법칙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법칙은 기독교인들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성스러운 표식들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으로 공포되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귀하들이 특히 성 아우구스투스 교단의 종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로부터 귀하들은 복음의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성스럽고 진정한 구원의 길인 가톨릭 믿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들께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귀하들께 말했던 모든 것을 믿어달라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1) 서지사항

저자 : Felipe II

제목 : Carta que su Majestad escriuió al Rey de la China

장소와 날짜 : Badajoz, 11 de junio de 1580

출처 : Archivo General de Indias (en Sevilla)

청구기호 : Patronato, 24, R. 51

의심할 바 없이 나는 귀하께서 신으로부터 은혜와 후의를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또한 좋은 판단력과 이해력으로 내가 귀하께 천상의 이익과 재산을 보내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으로 귀하께서 지상 최고의 위대함과 지상 최고의 왕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와 우리 후계자들, 그리고 신하들의 우정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 귀하와 귀하의 신하들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께 이 종교인들을 환대해주고 이들의 말을 인자하게 들어주시기를 기원하고 간청합니다. 지상의 왕국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신들의 대리자들인 이들은 귀하께 신에게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이니,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귀하께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귀하와의 더욱 견고한 우정을 위해 좋은 우정의 의미로 우리 왕국에서 나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보냅니다. 우리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은총으로 귀하를 빛나게 해주시고, 그 은총으로 귀하와 귀하의 왕국이 번성하기 기원합니다.

1580년 6월 11일 바다호스에서
스페인 국왕

2. 폐하께서 중국의 왕에게 보낸 서한 (1581년)²⁾

신의 은총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칠리아, 예루살렘 등의 왕이시자, 또한 (서)인도와 대양의 대륙과 섬들의 왕이며, 오스트리아의 대공이고, 밀란과 브라반테의 부르고뉴 공작이고, 합스부르크와 플랑드르와 티롤 등의 백작인 돈 펠리페,

대단히 친애하는, 강력한 중국의 국왕께

우리는 귀하께서 진심으로 강건하시고 번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초자연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수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피조물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신성한 계율의 완성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세에서의 힘들고 비참한 시간을 끝내고, 영광과 영원한 휴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봉사하면 할수록 내세에서는 더 큰 영광과 휴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목록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모든 성인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자신들의 성스러운 업적으로 주님의 수난을 통해 받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스러운 영광에 감화되어 종파를 설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중과 은둔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일에 대하여 명상하고 복음서의 설교를 실천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평온하고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일파가 바로 영광스러운 성 아우구스투스 교단이고, 우리는 우리의 편지와 함께 그 종단의 사람들을 파견하였습니다.

2) 서지사항

저자 : Felipe II

제목 : Carta que su Majestad escriuió al Rey de la China

장소와 날짜 : Santarén, 5 de junio de 1581

출처 : Archivo General de Indias (en Sevilla)

청구기호 : Patronato, 24, R. 54



명조 13대 황제 신종(만력제)

귀하께서는 이미 편지를 열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교리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셨더라도 기독교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훌륭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체의 교리로 교회를 숭배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 특히 성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맨발의 성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도사들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세의 세속적인 가치를 경시하고 무소유의 원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백성들을 개종시키고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신 진정한 신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여, 그 피조물들이 십자가의 깃발아래 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길고도 힘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진정한 결심과 의도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의 뜻이 없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뭇잎 한 장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열렬하고 자비롭고 인자한 욕망이 귀하께 전해지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신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고 강력한 중국의 왕께 바라건대, 이 종교인들을 잘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들이 귀하께 말하는 바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귀하의 왕국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귀하를 사랑하시는 신께서, 귀하가 이 세상에서의 순간을 마칠 때 귀하를 천국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강력하고 위대한 우리의 주님께서 은총으로 귀하를 비추고 신의 왕국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581년 6월 5일 스페인 국왕

[김선욱 해제 및 번역]